

인천지역 국회의원-인천시 간 예산정책협의회

5.28.(금) 14:00 / 여의도 글래드호텔(11층, BLOOM A홀)

□ 인사말씀

-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,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
- 지난해 코로나 대응, 국비 확보 등에 있어 많은 도움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, 민선7기 각종 현안의 마무리와 내년 예산 확보도 잘 부탁함
 - 의원님들 덕분에 인천시가 2021년 역대 최대인 4조412억 원의 국비 확보
 - 최근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7기 공약이행 재정책보율(61%)도 전국 지방정부 중 1위를 차지
 - 캠프마켓 개방, 제3연륙교와 서해평화도로 착공,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해묵은 현안들도 차근차근 해결되어 가고 있음

□ 인천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요청

- 300만 시민들을 위한 인천의 여러 현안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
 -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 중요한 시기임
 - 이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힘을 모아 현안을 해결해야 함
 -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통한 환경특별시로의 도약 필요
 - ▶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더불어 친환경 자원순환체계 구축 반드시 이루겠음
 - ▶ 안전한 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수소산업을 선도해나가겠음
 - 인천형 뉴딜을 통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구축 필요
 - ▶ 회색산업도시 이미지를 벗고 산업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도시로 거듭날 것
 - ▶ 인천의 강점인 바이오 뉴딜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,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
 - 특히 「K-바이오 랩허브」의 인천 유치에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어야 함
 - ▶ GTX-D 등 도로, 철도, 뱃길, 하늘길을 더욱 촘촘히 연결하여 우리 인천으로 사람, 지식, 자본이 모여들어 인천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할 것
 -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
 - ▶ 공항·항만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강화해 갈 것
- 중요한 현안들에 있어 소통과 협력 강화하겠음
 - 모두 모인 뜻깊은 자리,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더 자주 뵙고 지혜 구하겠음
 - ▶ 국비 5조원 시대를 열고 미래 인천의 환경, 산업, 복지 등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, 여·야, 그리고 시 정부가 힘을 하나로 모았으면 함